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공

진 은 아

2007년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진 은 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진은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년 8 월

< 국문초록 >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 은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진로상담에서 활용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고등학교(인문계 남학교 1개교, 인문계 여학교 1개교, 실업계 남학교 1개교, 실업계 여학교 1개교) 1학년 학생 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미라(2000)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진로미결정은 Osipow 등(1976)이 개발하였고, 후에 개정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중 진로미결정 척도를 유지선(2004)이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05'이하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총 사회적 지지는 성별·계열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하위 유형에서 살펴보면, 여학생은 친구지지를, 남학생은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계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자기평가 요인과 직업정보 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어려워하고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은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아진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부모지지와 진로미결정간에는 부적상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정적 상관,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에는 부모지지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 계획에 대한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과 함께 성별, 계열과 같은 상황적인 변인도 고려한 차별적인 진로상담과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파

악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담자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지지 정도와 자원을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적 지지	5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5
2)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인	6
3) 사회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10
2. 진로결정효능감	11
1) 진로결정효능감의 개념	11
2)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13
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14
3. 진로미결정	15
1) 진로미결정의 개념	15
2) 진로미결정 하위 요인 연구	17
3) 진로미결정 관련 변인 연구	19
III. 연구의 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절차	21
3. 연구도구	22
4. 자료처리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44
1. 요약	44
2. 결론	47
3. 제언	49
참고문헌	50
Abstract	57
부 록	60

표 목 차

<표Ⅲ- 1> 연구대상 현황	21
<표Ⅲ- 2> 사회적 지지 유형별 문항 및 신뢰도	22
<표Ⅲ- 3> 진로결정효능감 척도 문항 및 신뢰도	23
<표Ⅲ- 4> 진로미결정 척도 유형별 문항 및 신뢰도	24
<표Ⅳ- 1>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25
<표Ⅳ-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분석	27
<표Ⅳ- 3> 계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분석	28
<표Ⅳ- 4>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분석	30
<표Ⅳ- 5>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분석	31
<표Ⅳ- 6>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33
<표Ⅳ- 7> 계열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34
<표Ⅳ- 8> 사회적 지지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36
<표Ⅳ- 9>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분석	37
<표Ⅳ-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준의 상관관계	39
<표Ⅳ-11> 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40
<표Ⅳ-12> 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회귀분석	41
<표Ⅳ-13> 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회귀분석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김해수(2002)가 부산광역시 고등학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 성적, 친구, 성격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전국 1,500여명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갈등,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45.7%)이 학업과 관련된 고민(28.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2003). 이는 오늘날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자 주된 관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도움, 즉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진로상담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진로 미결정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로상담의 이와 같은 기능은 Phillips(1992)가 진로 상담의 이상적인 모습을 ‘문제가 없는 선택(problem-free choosing)’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미결정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 중 하나는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특히 진로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변인과 관련지어 다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변인들로서는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양식 및 기타 성격변인들이었다(김계현, 김봉환, 1995).

이와 함께 최근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을 들고 있다(조아미, 2000; 이은경, 2001; 김민정, 2006).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둔 것으로,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에 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진로결정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다고 보고한 학생은 확신이 많다는 학생보다 미결정 점수가 높았으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송영란, 2007, 재인용).

그러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진로결정효능감 척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부진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진로결정이 인간의 전 생애에서 어느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심리적 변인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특성만이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와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간 요인 즉, 가족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 동료관계, 사회적 지지, 애착 등이 진로발달관련 변인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유지선, 2004).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를 둘러싼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가 이들의 중요한 사회 환경 요인이 되며,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진로와 학업 문제에 대한 갈등을 완화시키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진로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넷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진로미결정은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라 진로미결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
이 있을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각각의 하위요인은 진로미결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적응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윤소연,1993).

과거에는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한 인간이 발달하는데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연정,2002).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데 사회적 지지 개념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자마다 변인에 대한 개념 및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완수, 2005, 재인용).

Cobb(1976)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며,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으며 의사전달과 상호 의무의 조직 속에 들어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최성

열, 2000, 재인용).

Autonucci(1980)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애정관계적 협상을 사회적 지지로 보면서 애정은 좋아함, 동경, 존경, 사랑의 표현을, 긍정은 어떤 행동이나 진술에 대한 동의 또는 알고 있음의 표현을, 도움은 물건, 돈, 정보, 시간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래를 표현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김유현, 2005,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송중용과 원호택(1988)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자원으로 보았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이라고 했다.

한편 장인협과 오세란(1996)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하는 자원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독특함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아감을 형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치가 있으며 중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행동 변화에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제공한다. 셋째, 스트레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좀 더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유용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개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인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관한 연구,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측면

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은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모, 형제를 포함한 가족, 친구, 교사 등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이 된다.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Hamburg(1967)는 가족 지지를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Cobb(1976)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를 포함하였다. 특히, Kaplan(1977)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자원보다도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김완수, 2005, 재인용).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김인숙(199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출처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종교, 전문인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 지지의 정도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였다.

Furman과 Buhrmester(198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써 가족, 친구, 교사들을 들었다.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는 자녀의 인생 초기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이다. Kostelecky와 Lempers(1998)에 의하면,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애정, 가치감 확인,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수용, 지지를 충분히 받은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다(김완수, 2005, 재인용).

반면, 심승원(2000)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사회망이 더욱 확장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줄어들고 동료와의 관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친밀한 우정과 친구에 의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구는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한미현, 1996).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지적 성숙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적응,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진(1993)은 교사지지가 청소년들에게 동일시와 모델링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과 학교의 제한된 환경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의 발달과정을 통해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 친구 및 교사가 된다.

(2) 사회적 지지 유형

초기에 사회적 지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지지와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후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단일적인 특성보다는 다요인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기능과 내용적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었다.

Scheafer, Coyne과 Lazarus(1981)는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의 3형태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지지를 정의했으며, Cohen과 Hoberman(1983)는 사회적 지지를 자존감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물질적 지지로 나누었다. 또한 Richter(1984)는 사회적 지지를 대인 관계적 지지와 동일시하면서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장연정, 2002,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발하면서 4가지 범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그 범주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유형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1)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시간, 재원을 제공해주는 물질적 지지, 2)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 3) 단체나 또래 집단 등에 속해서 다른 이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소속·정서적 지지, 4)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감 지지로 나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측면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과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내용적 측면에 따른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구조적인 측면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로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 관계 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말한다. 반면 기능적인 측면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개인이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를 주관적으로 측정하여 사회적 지수로 삼은 것이다. 즉 객관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적응을 예언하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Cohen과 Syme(1985)의 연구의 경우, 개인이 객관적으로 받은 지지가 아닌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장미애, 1998, 재인용)

객관적 지지는 교육, 직업, 가족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지 형태나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지지를 기능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경우 지지 제공자나 지지 내용 그리고 지지에 대한 만족도 등이 연구되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접촉 빈도나 밀도, 안정성, 동질성 등이 연구된다(박지원, 1985). 반면 주관적 지지는 주로 지지의 유형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며, 객관적 지지보다 더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가 제공된 지지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제공된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많은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 해도 개인이 지

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남희경, 1997).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제공자에 따라 부모, 친구, 교사로 나누고 고등학생들이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할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선택 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Ferry, Fouad, & Smith, 2000). 진로와 외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 내의 변화와 일의 상호교환 증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Chope, 2001)

Astin(1984), Lent, Brown과 Hackett(1994)들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각이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 변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선영, 2004, 재인용).

미국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해 지지원들과의 관계를 다룬 질적 연구에서 정서지지는 확실히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회 관계망 지지가 진로결정개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정보지지와 존중지지는 진로결정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용기를 주며, 진로발달의 유효한(instrumental) 능력에 확신을 갖게 한다(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국내 연구를 보면, 류진해와 김태성(1998)이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대학생은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진로관련 문제에서 훨씬 긍정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일수록 부모의 안정적 지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차연·박경, 2001).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지고 구체적 진로결정에 직면할 때 부모가 주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미순(1998)은 직업과정 청소년의 사

회적 지지가 진로성숙과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가족과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관심과 격려가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본인의 능력과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수준이 높다고 했다. 여기서 진로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로 학습에 증진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주변의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 교사의 역할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다(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발달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힘을 주며,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타인 중 부모, 친구, 그리고 교사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보고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효능감

1) 진로결정효능감의 개념

진로이론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진로결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학자들은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수 있으므로, 성취 행동 및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켰다(김선중,2005).

진로결정효능감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아야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주옥,2004, 재인용).

또한,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난이도나 복잡성,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가지 예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은 학업적 상황과 같은 특정한 맥락 내에서의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작업도 특정 맥락 내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행동과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여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그 후, Hackett와 Betz(1986)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이은경, 2001, 재인용).

Hackett와 Betz(1981)에 의해서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 심리학과 진로상담에 적용되어 온 이래, 자기효능감 이론이 적용된 영역들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Rooney & Osipow, 1992), 수학적 자기효능감(Betz & Hackett, 1983), 진로결정효능감(Taylor & Popma, 1990), 학문적 중대사건과 관련된 자기효능감(Lent, Brown, & Larkin, 1984),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Taylor & Betz, 1990), 그리고 진로탐색효능감(Solberg, Good, & nord, 1994)과 같은 것들이 있다(김남순, 배종훈, 2000, 재인용).

이 중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rites's(1971)의 진로성숙과 태도의 모델에 바탕을 둔 것으로, 수학이나 과학, 혹은 공학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 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달리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이다(한주옥, 2004, 재인용). 또한 Taylor와 Betz(1983)는 진로전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기 위해, 진로결정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ylor와 Betz(1983)에 의하면, 자기평가(5문항)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직업정보(5문항)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목표설정(5문항)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미래계획(5문항)은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며, 마지막으로 문제해결(5문항)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감을 말한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성숙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에 따라 일반적인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행동들(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신감이나 확신감을 진로결정효능감이라 본다.

2)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Hackett와 Betz(1981)는 진로결정효능감이 개인이 다양한 진로선택이나 진로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학자들(Taylor & Betz, 1983; Robbins, 1985; Taylor & Popma, 1990)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효능감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CDMSE)척도를 사용한 연구들(Betz & Luzzo, 1996; Betz & Voyten, 1997)도 일관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부적의 관계를 보고하였다(한주옥, 2004, 재인용).

국내에서 이현주(200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대학생은 진로결정 대학생보다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진(1999)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결정 상태에 있다고 나타났다. 조아미(2000)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2004)는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진로를 결정한 집단의 효능감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달리 Lent(1987) 등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이 중요하게 관련되지 않음을 보고 있어, 다른 연구들과 모순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현주, 2000, 재인용).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86)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로결정효능감의 개념은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Bandura(1986)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Barrera(1981)는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로부터 경험한 사랑과 수용, 안정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할 때 행동장애를 막아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박지은, 2005, 재인용).

Hoffman 등(1988)은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사춘기 자녀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uang과 Silbereisen(1999)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득연, 2004, 재인용). 또한, Ryan 등(1996)은 애착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진로자기효능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여,

격려를 자주하고 지지적이며 협조적인 어머니에 대한 경험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유지선, 2004, 재인용). 국내 연구를 보면, 박현일과 김기원(2001)이 친구/애인의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에 있어서 유의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오선옥(2001)은 아동이 처한 환경에서 부모, 교사, 친구의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성격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2002)의 공동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의미 있는 타인 중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가장 컸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나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3. 진로미결정

1) 진로 미결정의 개념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이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것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진로상담분야의 중심적인 연구주제들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진로 미결정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진로 상담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진로 상담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내담자들의 진로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고, 특히 진로 결정 과정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결정을 방해하는 독특한 어려움들을 밝혀내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단계이다(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을 진로 미결정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로 미결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해하고 고민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Wanberg & Munchinsky, 1992). 따라서 진로 미결정의 초기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자들과 진로 미결정자들이 능력, 흥미, 성격특성 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두어 진행 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은 진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내담자를 정확히 선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점차 진로 미결정 집단을 다시 두 분류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즉, 발달적 미결정(developmental indecision)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인 반면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만성적인 미결정(chronic indecision)으로 불리어 왔다(전경애, 2004).

한편, 70년대 중반, 많은 학자들은 미결정을 이분법으로 조작적 정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일차원의 연속개념으로 미결정을 보기 시작하였다. Holland(1977)와 Osipow(1976)가 대표적 인물로 이들은 피상담자들이 진로 결정의 연속선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와 진로 선택을 미루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흔히 진로 미결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차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유지선, 2004, 재인용).

진로 미결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연구의 주요 경향은 진로 미결정이 개인마다 서로 다른 표현 양상과 원인들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미결정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하위 유형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그동안 미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심리적 변인들을 가려낸 후, 미결정의 하위유형들이 이러한 변인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한주옥, 2004). 이에 따라 김봉환(1997)은 진로상담자들도 각 내담자의 특성, 문제의 성격,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상담전략을 도입해서 “차

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또 다른 연구 경향으로는 진로미결정이 진로결정이론을 토대로 진로 의사결정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을 이행하기까지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과정이 중단되거나 지체된다. 즉 진로결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론적 맥락을 토대로 문제를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Tinseley, 1992)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진로 미결정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진로 미결정은 단순히 개인이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만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특성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참고로 진로 미결정을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진로를 아직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2) 진로 미결정 하위 요인 연구

미결정 상태의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는 문제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진로미결정 개념이 다차원의 복합개념이라는 전제에서 나오는데 학자에 따라서 하위유형이나 요인, 차원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차별적 처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의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차원(domain)에 대한 연구와, 미결정된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려는 하위유형(subtypes)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유지선, 2004).

예를 들어 Osipow 등(1976)은 진로 미결정의 차원에 관심을 두고 있고, Holland와 Holland(1977)는 미결정 학생들의 유형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재인용).

진로미결정의 차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추출되었으며, 초기 Osipow 등(1976)은 본인들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DS)의 요인 분석을 통해 1)구조와 확신의 결여, 2) 인지된 외부적 장애, 3) 긍정적인 선택 갈

등, 4) 개인적인 갈등으로 구분하였으며, Shimizu(1988)도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1) 혼돈, 2) 강화와 지원에 관한 소명을 가지는 어느 정도의 결정, 3)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접근-접근 갈등, 4) 진로결정에 관한 내적, 외적인 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유지선, 2004, 재인용).

또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와 진로요인도구(Career Factors Inventory), 그리고 진로결정 어려움 척도(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등을 이용하여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도출한 Kelly와 Lee(2002)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진로미결정의 문제는 1) 주로 자신과 진로 정보, 진로의 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문항들이 포함된 '정보결핍' 요인과 2) 진로정보와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에 대한 필요(욕구)', 3) 일반화된 우유부단함과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포함하는 '특성 미결정(만성 미결정)', 4) 외부요인과의 갈등을 포함하는 '타인과의 불일치' 요인, 5) 직업은 가져야 하지만 아직 호감 가는 직업이 없다는 등의 항목이 포함된 '정체성 혼란'요인, 6) 진로선택 불안요인을 포함하는 '선택불안', 외에 요인으로는 묶였으나 신뢰도가 떨어져 제외된 7) '긍정적인 선택 갈등', 8) '임시적 결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는 달리 미결정의 유형(subtypes)을 분류하려는 연구는 미결정된 개인들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해 이와 같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김계현, 김봉환, 1995). 초기는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미결정한 학생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밝히려는 것이나, 최근에는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함께 측정되어 군집분석을 통해 그 하위유형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Gordon(1998)은 Savickas(1995)의 연구를 인용하여 미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분법적 연구에서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으로,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개념으로 진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Gordon(1998)은 선행연구 15편에서 도출된 다양한 진로결정의 하위유형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여 1) 확실히 결정된, 2) 어느 정도 결정된, 3) 불안정하

게 결정된, 4) 임시로 미결정 상태, 5) 발달적으로 미결정 상태, 6) 심각한 미결정, 7) 만성적인 미결정 상태와 같이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Gordon(1998)과 같이 미결정 학생뿐만 아니라 결정학생의 하위유형도 구분하는 연구동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다차원적이고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차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을 1) 진로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 요인’, 2)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가 부족한 ‘정보 필요 요인’, 3)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선택을 못하고 있는 ‘긍정적 갈등요인’, 4) 어느 정도 결정은 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나와 관계있는 타인으로 인해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내외적 갈등요인’으로 보고 다차원적인 진로미결정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진로 미결정의 변인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Gordon(1981)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흥미, 가치 능력, 요구, 자아개념, 성숙, 동기, 에너지수준, 의존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부모의 소득, 과외활동, 의사결정양식 등의 30여개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크게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이지영, 2004, 재인용).

심리적 변인에는 불안(Fuqua & Hartman, 1983), 진로결정효능감(Taylor & Betz, 1983), 의사결정양식(Osipow & Reed, 1985), 5요인 성격(Lounsbury, 1999) 등이 있다. 이 중 ‘불안’은 많은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의 관련 변인들 중에서 진로결정능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이지영, 2004, 재인용).

Taylor와 Betz(1983)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다고 보고한 학생은 확신이 많다는 학생보다 진로미결정점수가 높았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인에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 계열, 사회적 지지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덜 의존적인 반면(고향자,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진로결정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1996). 즉, 성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고 있으며, 성에 따라 진로에 대한 사고와 결정하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과 전공은 대학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래의 직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1996). 허자영(1996) 또한 계열과 관련하여서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자연과학과 공학의 경우는 진로는 결정하였지만 확신이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Daniels와 Buck(1984)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에 대한 확신 점수는 대학교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1학년이 가장 낮았다(이지영, 2004, 재인용).

사회적 지지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고찰한 Burke, Bristor, 그리고 Rortstein(1995)은 개인을 둘러싼 지지적인 상호 관계망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Fitzgerald 와 Betz(1994)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가 자녀의 직업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이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변인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로상담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심리적 변인 중 진로결정효능감과 사회적 변인 중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 변인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고등학교(인문계 남학교 1개교, 인문계 여학교 1개교, 실업계 남학교 1개교, 실업계 여학교 1개교) 1학년 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가운데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대답을 제외한 총 94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현황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 현황

측정변인		인원	백분율(%)
성별	남	478	50.42
	여	470	49.58
계열별	인문계	481	50.74
	실업계	467	49.26
전체		948	100.00

2. 연구절차

검사지는 2006년 11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6일까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고등학교 남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검사지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반응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58부를 제외한 총 948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검사의 목적, 실시 방법을 설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는 각 학급 담임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사회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미라(2000)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 체계로서 부모, 교사, 급우, 친구 등에 따라 4개의 학위 척도로 나뉘어 각 체계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각 15문항이며 전체 총 60문항이다. 이것을 이미라는 각각의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로 재구성하여 각 문항을 9문항씩 전체 27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때 각 하위 영역은 문항 순서별 지지 영역에 해당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27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하였다. 획득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7~10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유형별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Ⅲ-2>와 같다.

<표Ⅲ-2> 사회적지지 유형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 유형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부모지지	1 ~ 9	0.86
교사지지	10 ~ 18	0.91
친구지지	19 ~ 27	0.89
사회적 지지 전체	1~27	0.90

2) 진로결정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CDMSES-SF는 효

과적인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5가지 진로결정관련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효능감의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Ⅲ-3>과 같다.

<Ⅲ-3> 진로결정효능감 척도 문항 및 신뢰도

항목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자기 평가	5, 9, 14, 18, 22	0.77
직업 정보	1, 10, 15, 19, 23	0.77
목표 설정	2, 6, 11, 16, 20	0.67
미래 계획	3, 7, 12, 21, 24	0.65
문제 해결	4, 8, 13, 17, 25	0.77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1~25	0.92

3) 진로미결정 척도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ipow 등(1976)이 개발하고, 후에 개정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중, 진로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를 유지선(2004)이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DS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단계 Likert 척도의 자기 보고식 18문항과 자유반응형 한 문항을 더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2문항은 확신성 차원(certainty scale)의 문항으로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미결정 차원(indecision scale)으로 일반적인 미결정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문항은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점은 문항 1,2는 높을수록 확신수준이 높음을,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유지선(2004)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수준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신성 차원의 1,2문항과 자유반응형 문항인 19번은 제외한 나머지 미결정차원의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진로미결정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및 .82였으

며, 고향자(1992)는 .86을 보고하였고, 유지선(2004)은 .85를 보고하였다. 타당도는 많은 문헌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Osipow와 Schweiker(1981)은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ACDM)과의 관계로, Slaney(1980)는 Occupational Alternatives Question(OAQ)과의 비교를 통해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고향자(1992)가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진로미결정의 유형별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Ⅲ-4>와 같다.

<표Ⅲ-4 >진로미결정 척도 유형별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Cronbach α)
확신의 부족	3, 5, 6, 8, 11, 12	0.86
정보의 필요	9, 10, 14, 15, 16	0.72
긍정적 갈등	2, 13	0.58
내외적 갈등	1, 4, 7	0.43
진로미결정 전체	1~16	0.87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자료인 각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분석(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차이분석(t -검증), 단순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05'이하에서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점수에서 중위값을 중심으로 높은점수를 받은 집단을 상집단으로, 낮은점수를 받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구 대상 전체 (N=948)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IV-1>과 같다.

<표IV-1> 사회적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하위 요인	M	SD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28.17	4.93
	친구지지	21.73	5.98
	교사지지	27.32	4.78
	사회적 지지 전체	77.22	10.66
진로결정효능감	자기 평가	12.32	2.86
	직업 정보	12.40	2.92
	목표 설정	12.92	2.57
	미래 계획	13.48	2.56
	문제 해결	13.68	2.73
	진로결정효능감전체	64.80	11.42
진로미결정	확신의 부족	14.31	4.49
	정보의 필요	13.73	3.12
	긍정적 갈등	5.25	1.56
	내외적 갈등	7.25	1.84
	진로 미결정전체	40.54	8.79

사회적 지지의 경우 부모지지(M=28.17)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교사지지(M=27.32), 그리고 친구지지(M=21.7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부모의 지지가 친구의 지지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등학생들에게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진로결정효능감의 경우 평균이 64.80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수준은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보면,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M=13.68)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미래 계획(M=13.48), 목표 설정(M=12.92), 직업 정보(M=12.40), 자기평가(M=12.32)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의 평균은 40.54로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필요(M=13.73)요인과 긍정적 갈등(M=5.25)차원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몇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확신의 부족요인과 내외적 갈등요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분석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2>와 <표IV-3>과 같다.

<표IV-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분석

하위 요인	성별	N	M	SD	t
부모지지	남	478	28.29	4.79	0.74
	여	470	28.05	5.08	
친구지지	남	478	26.21	4.76	-7.36***
	여	470	28.44	4.54	
교사지지	남	478	22.77	6.23	2.50*
	여	470	21.76	5.69	
사회적지지 전 체	남	478	77.68	10.75	-1.47
	여	470	78.69	10.54	

*p<.05, ***p<.001

<표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M=78.69)의 사회적 지지는 남학생(M=77.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친구지지에서는 여학생(M=28.44점)이 남학생(M=26.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6, p<.001). 반면 교사지지에서는 남학생(M=22.77)이 여학생(M=21.7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이는 서송이(2001)의 사회적 지지와 분노표현방식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한수현(200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및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권용미(2003) 결과와, 남학생이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오은경(2003)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표 IV-3> 계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분석

하위 요인	계열별	N	M	SD	t
부모지지	실업	467	27.60	4.96	-3.55***
	인문	481	28.73	4.85	
친구지지	실업	467	27.41	4.83	0.61
	인문	481	27.22	4.73	
교사지지	실업	467	21.82	5.98	0.46
	인문	481	21.64	5.99	
사회적지지 전 체	실업	467	76.83	10.74	-1.10
	인문	481	77.60	10.57	

*** p<.001

계열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문계열(M=77.60)이 실업계열(M=76.8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하위유형에 대한 차이 결과를 보면, 부모지지에서 인문계열(M=28.73)이 실업계열(M=27.6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5$, $p<.001$). 한편 친구지지 및 교사지에서는 실업계열(M=27.41)이 인문계열(M=27.22)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유의하게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오은경(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영미(2005) 연구에서는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부모, 친구, 교사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계열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종합해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

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교사로부터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하위요인에서만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분석

【가설 2】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을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4>와 <표IV-5>와 같다.

<표IV-4>에 제시된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를 보면, 남학생(M=66.41)이 여학생(M=65.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살펴보면, 자기평가에서 남학생(M=12.58)이 여학생(M=12.32점)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28, p<.01$), 직업정보에서도 남학생(M=12.98)이 여학생(M=12.34)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55, p<.001$). 그러나,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IV-4>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분석

하위 요인	성별	N	M	SD	t
자기평가	남	478	12.58	2.74	2.88**
	여	470	12.32	2.96	
직업정보	남	478	12.98	2.78	3.55***
	여	470	12.34	3.01	
목표설정	남	478	13.15	2.50	0.16
	여	470	13.14	2.63	
미래계획	남	478	13.69	2.39	-0.16
	여	470	13.74	2.71	
문제해결	남	478	13.97	2.60	0.65
	여	470	13.88	2.87	
진로결정 효능감 전체	남	478	66.41	10.68	1.78
	여	470	65.23	12.10	

p<.01, *p<.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조진숙(2004)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효능감이 차이를 보인 결과(홍혜영, 1995; 김수리, 2004; 전경애, 2004)와는 다른 것이다.

<표IV-5>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분석

하위 요인	계열별	N	M	SD	t
자기평가	실업	467	12.11	2.88	-2.26*
	인문	481	12.52	2.83	
직업정보	실업	467	12.18	2.89	-2.28*
	인문	481	12.61	2.92	
목표설정	실업	467	12.61	2.54	-3.66***
	인문	481	13.21	2.56	
미래계획	실업	467	13.25	2.51	-2.81**
	인문	481	13.71	2.58	
문제해결	실업	467	13.17	2.63	-5.71***
	인문	481	14.17	2.74	
진로결정 효능감전체	실업	467	63.35	11.34	-3.97***
	인문	481	67.25	11.32	

*p<.05, **p<.01, ***p<.001

<표IV-5>의 계열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를 보면, 인문계열(M=67.25)이 실업계열(M=63.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7, p<.001). 진로결정효능감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에서 인문계열이 실업계열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p<.05).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열 학생이 실업계열 학생보다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확신하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진학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효능감 수준에 있어서 계열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을 검증한 연구에서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온 박진채(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신을 인식하고 진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더 높다.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4.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진로 미결정수준의 차이 분석

【가설 3】 진로미결정수준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미결정수준을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6>과 <표IV-7>과 같다.

<표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 미결정 수준 차이를 보면, 여학생(M=41.67)이 남학생(M=39.43)보다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4$, $p<.001$). 진로 미결정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확신의 부족, 정보의 필요, 긍정적 갈등, 내외적 갈등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sim p<.05$).

<표IV-6>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하위요인	성별	N	M	SD	t
확신의 부족	남	478	13.82	4.24	-2.77**
	여	470	14.62	4.64	
정보의 필요	남	478	13.31	3.00	-3.84***
	여	470	14.07	3.11	
긍정적 갈등	남	478	5.06	1.47	-3.51***
	여	470	5.40	1.56	
내외적 갈등	남	478	7.04	1.77	-3.21**
	여	470	7.42	1.87	
진로 미결정	남	478	39.43	8.37	-3.94***
	여	470	41.67	9.07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수길,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관석,2001; 송영준,2002; 양은정, 2002). 최근의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남녀의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별을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더 지각하며 진로의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여전히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과정 및 고정관념이 우리 지역사회 저변에 깔려있음을 시사한다.

<표IV-7> 계열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하위요인	계열	N	M	SD	t
확신의 부족	인문계	467	13.92	4.35	2.09*
	실업계	481	14.53	4.55	
정보의 필요	인문계	467	13.54	3.08	1.17
	실업계	481	13.84	3.08	
긍정적 갈등	인문계	467	5.24	1.49	-0.19
	실업계	481	5.21	1.56	
내외적 갈등	인문계	467	7.04	1.76	3.27**
	실업계	481	7.42	1.87	
진로 미결정	인문계	467	39.89	8.99	-2.33*
	실업계	481	41.21	8.53	

*p<.05, **p<.01

<표IV-7>에 제시된 계열별에 따른 진로 미결정 수준 차이를 보면, 실업계열(M=41.21)이 인문계열(M=39.89)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3,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신의 부족요인에서 실업계열(M=14.53)과, 인문계열(M=13.92)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09, p<.05), 내외적 갈등요인에서도 실업계열(M=7.42)과 인문계열(M=7.04)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7, p<.01). 정보의 필요 요인과 긍정적 갈등 요인에서는 계열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업계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계 학생은 내가 희망하는 진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원치 않아 좌절로 인하여 진로결정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보

고한 문승태(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영준(2002)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이 진로미결정수준이 높았다. 이처럼 계열간 진로결정수준간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와는 달리 최근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연구한 연구(김관석, 2001; 양은정, 2002; 유명미, 2005)에서는 계열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과 관계있는 타인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긍정되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5.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별(상·하) 진로미결정 차이 분석

【가설 4】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라 진로미결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각각의 하위요인을 상, 하로 나누어 진로미결정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의 각 변인별 점수에서 중위값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상집단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IV-8>과 <표IV-9>와 같다.

1) 사회적 지지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표IV-8> 사회적지지의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변인	하위요인	집단	N	M	SD	t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상	484	39.88	9.37	-2.39*
		하	464	41.23	8.09	
	친구지지	상	540	40.22	9.03	-1.27
		하	408	40.96	8.45	
	교사지지	상	514	40.42	8.68	-0.46
		하	434	40.68	8.92	
	사회적 지지 전체	상	468	40.10	9.09	-1.50
		하	431	40.99	8.64	

*p<.05

<표IV-8>에 제시된 사회적 지지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를 보면, 사회적 지지 하위유형인 부모지지에서 부모지지가 낮은 집단(M=41.23)이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M=39.88)보다 진로미결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9, p<.05). 그러나, 친구지지가 낮은 집단과 교사지지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다소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로, 강차연과 박경(2001)은 진로와 관련된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일수록 부모의 안정적 지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상관관계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평가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을 높게 만든다는 노미순(1999)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미결정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를 진로결정수준 변인으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Blustein, Fama & Finkelberg, 2001; Schultheiss et al, 2001)에서는 친구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친구의 일에 대한 진로정보와 도움, 충고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고 직접적 행동에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연구결과(이선영, 2004, 재인용)와 달리 친구지지 또한 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는 대학생들과는 달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친구가 어려운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관심과 가치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 관련 여러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를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며 나아가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수준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진로 상담과 교육을 할 때는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상·하) 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표IV-9>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하위 요인	집단	N	M	SD	t
자기평가	상	449	32.03	8.89	-15.37***
	하	499	44.99	6.89	
직업정보	상	448	32.50	8.26	-15.49***
	하	500	46.10	7.24	
목표설정	상	388	36.27	9.58	-9.36***
	하	560	44.46	7.35	
미래계획	상	468	35.16	9.37	-9.96***
	하	480	44.01	7.79	
문제해결	상	360	35.28	9.78	-10.36***
	하	588	43.43	6.94	
진로결정 효능감	상	464	32.63	8.81	-17.00***
	하	484	45.35	6.75	

***p<.001

<표Ⅳ-9>는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상·하)집단에 따른 진로 미결정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진로결정효능감 모든 하위 요인의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한 일련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미진, 1999; 문미란,2003; 전경애, 2004). 이는 진로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생은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과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안정적인 격려 및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로 전반적인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6.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상관분석

【가설 5】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수준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Ⅳ-10>과 같다.

<표Ⅳ-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준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1. 부모지지	-				
2. 친구지지	0.295***	-			
3. 교사지지	0.179***	0.107***	-		
4. 진로결정효능감	0.270***	0.206***	0.139***	-	
5. 진로 미결정	-0.079*	-0.030	-0.043	-0.525***	-

* p<.05, *** p<.001

위 결과를 보면 부모지지($r=0.270$, $p<.001$), 친구지지($r=0.206$, $p<.001$), 교사지지($r=0.139$, $p<.001$)와 진로결정효능감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부모지지($r=-0.079$, $p<.05$), 진로결정효능감($r=-0.525$, $p<.001$)과 진로 미결정간에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진로미결정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등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이 높고, 이렇게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높게 인식한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수준이 낮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5】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7.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가설 6】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각각의 하위요인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미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IV-11>과 <표IV-12>와 같다.

1)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IV-11> 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부모지지	-0.129	-0.072	-2.11*	2.26	0.007
친구지지	-0.009	-0.005	-0.15		
교사지지	-0.043	-0.029	-0.89		

*p<.05

<표IV-11>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은 부모지지(Beta=-0.072)로 나타났고, 부모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7%였다. 그러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IV-12> 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자기평가	-0.833	-0.271	-6.63***	101.08***	
직업정보	-1.161	-0.385	-9.18***		
목표설정	0.384	0.112	2.83**		0.349
미래계획	-0.389	-0.113	-3.04**		
문제해결	0.111	0.035	0.84		

** p<.01, *** p<.001

<표IV-12>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을 34.9%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F값은 101.08이고 p<.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진로결정효능감 하위 변인들 가운데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은 직업정보(Beta=-0.385), 자기평가(Beta=-.271), 미래계획(Beta=-.113)순으로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p<.01~p<.05). 이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며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경(2001),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진로발달의 전체점수를 예측하는데 목표설정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직업정보가 진로미결정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이며, 오히려 본 연구에서 목표설정(Beta=2.83)은 진로미결정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따라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신감의 증진보다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 증진이 보다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IV-13>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은 부모지지(Beta=.060)로 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 요인은 자기평가(Beta=-.275)가 3.1%의 영향을, 직업 정보(Beta=-.382)가 30.8%, 목표설정(Beta=.113)은 0.3%, 미래 계획을(Beta=-.112)이 0.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정보가 30.8%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진로미결정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35.3%이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문제 해결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IV-13>진로미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ch	R ²
부모지지	0.107	0.060	2.14*	86.35***	0.005	0.005
자기평가	-0.843	-0.275	-6.84***		0.031	0.036
직업정보	-1.152	-0.382	-9.18***		0.308	0.344
목표설정	0.386	0.113	3.00**		0.003	0.347
미래계획	-0.384	-0.112	-3.17**		0.006	0.353

R²값은 stepwise 방법에 의한 누적임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여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지닐 때 진로미결정수준이 낮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각각의 하위

요인은 진로미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특히 자기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진로상담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넷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진로미결정은 성별, 계열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상·하)에 따라 진로미결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각각의 하위요인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고등학교에 1학년 학생 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미라(2000)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ipow 등(1976)이 개발하였고, 후에 개정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중 진로미결정 척도를 유지선(2004)이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05'이하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M=78.69)이 남학생(M=77.68)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친구지지에서는 여학생(M=28.44)이 남학생(M=26.2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친구지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7.36, p<.001$), 교사지지는 남학생(M=22.77)이 여학생(M=21.76)보다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0, p<.05$). 계열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인문계열(M=77.60)이 실업계열(M=76.83)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에서는 부모지지에서 인문계열(M=28.73)이 실업계열(M=27.60)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55, p<.001$).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하위적 요인에서만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은 남학생(M=66.41)이 여학생(M=65.23)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남학생(M=12.58)이 여학생(M=12.32)보다 자기평가와 관련된 효능감에서 더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88, p<.01$), 직업정보에서도 남학생(M=12.98)이 여학생(M=12.34)보다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55, p<.001$).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은 인문계열(M=67.25)이 실업계(M=63.35)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7, p<.001$).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M=41.67)이 남학생(M=39.43)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94, p<.001$). 계열에 따른 진로미결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업계열(M=41.21)이 인문계열(39.89)보다 높게 나타났다($t=-2.33, p<.05$). 따라서, 진로미결정은 ‘성별 및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긍정되었다.

넷째,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지지의 상·하 수준별 진로미결정은 상집단(M=39.88)이 하집단(M=41.23)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39, p<.05$),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별(상·하) 진로미결정의 차이를 보면, 상집단(M=36.94)이 하집단(M=44.3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4.31, p<.001$). 즉,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상·하)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수준에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sim p<.05$).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만이 진로미결정과 부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079$, $p<.05$),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와 진로미결정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0.525$, $p<.001$).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지지($r=0.270$, $p<.001$), 친구지지($r=0.206$, $p<.001$), 교사지지($r=0.139$, $p<.001$)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수준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5]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sim p<.05$).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은 부모지지(표준화 Beta=-0.072)로 나타났고, 부모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7%였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기평가(표준화 Beta=-0.271)가 3.1%, 직업정보(표준화 Beta=-3.835)가 30.8%, 목표설정(표준화 Beta=0.112)이 0.3%, 미래계획(표준화 Beta=-0.113)은 0.6%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35.3%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교사로부터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신을 인식하고 진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진로

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이 더 높다.

셋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과 관계있는 타인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학생을 상담할 때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과 함께 성별, 계열과 같은 상황적 변인도 고려해서 차별적인 진로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고등학생들은,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담자는 고등학생들의 부모 지지의 정도와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등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이 높고, 이렇게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높게 인식한 고등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은 낮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 또는 자신에게 느끼는 인식들이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 상담에서는 진로미결정 학생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부모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에는 부모지지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 계획에 대한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지지의 영향을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한다.

3.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진로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수준을 학년 간의 차이는 연구하지 않았으나, 진로발달과정을 고려해 볼 때, 진학을 앞둔 3학년과 1학년들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참고하여 연구하면 학년에 따른 진로지도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인 측면인 지지원에 대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지지를 측정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제공된 자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여러 하위 유형들과 함께 측정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수준 등 세 변인간의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차연·박경(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3권 2호, 51-69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용미(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현, 김봉환(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관석(2001).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순, 배종훈(2000). 진로결정검사의 표준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Vol 14, No 3 pp 83-98.
- 김민정(2006).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수(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현(200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해수(2002).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희경(1997). 학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정서 부적응과의 관계: 서울시 거주중학생을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진혜·김태성. (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6권 제1호, 211-232.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문미란(2003).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승태(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과의 인과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금선(2001).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박미진(1999).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길(2000).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교육심리연구*. Vol 16, No 2 pp 63-92.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은(2005).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채(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헌일, 김기현(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자기 효능감간의 관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 논총*, 19,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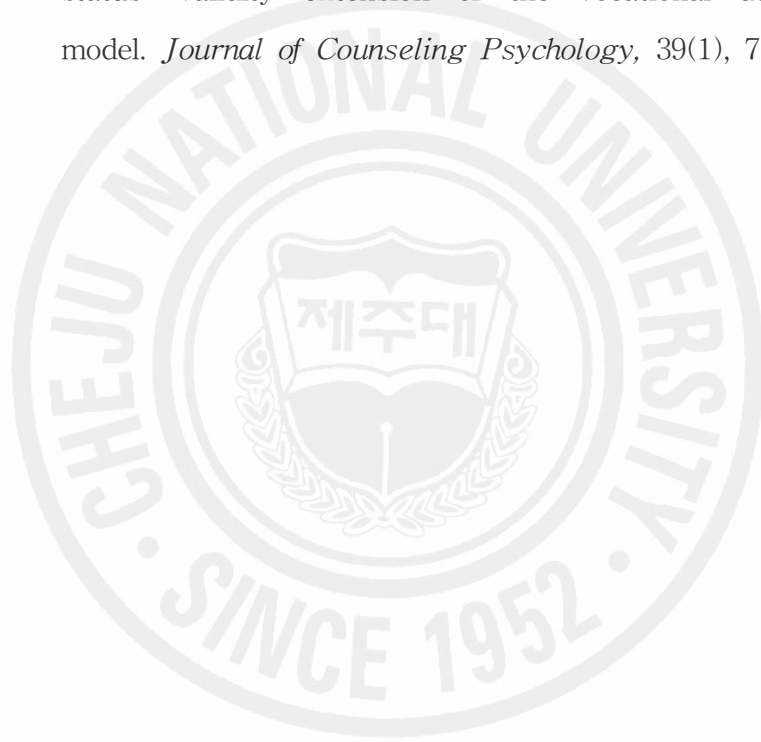
- 서송이(200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분노표현방식 및 우울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영란(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영준(200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중용·원호택(1988). 스트레스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회지** 제7권 1호, 21-30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은정(2002).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아정체감 및 인생목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선옥(2001).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미(2005). **사회적지지 지각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자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진(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도서출판서원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 김명원(1998).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연구**. 제9권. pp.277-298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

- 기효능감과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득연(2004). **진로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 진로결정수준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라(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 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현(2005).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Vol. 4, No 1, pp. 137-161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영(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서 직업탐색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 양식의 차이**. **교육학 연구**, 38(1), 235-257.
- 장미애(1998).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철(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3호 pp.117-134
-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 · 오세란(1996). **사회지지체계론**. 서울: 집문당
- 전경애(200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조진숙(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열(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4).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별 귀인성향과 진로의사결정 자기 효능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의 삶과 고민-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주옥(2004). **여대생이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_____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urk, R. J., Bristor, J. M., & Rothstein, M. G(1995). The role of interpersonal

- network in women's and men's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hope, R. C.(2001).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17(2). 54-64
-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48-364
- Fitzgerald, L. F., & Betz, N. E.(1994). Career development in a cultural context. In M. L. Savickas & P.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103-118. Palo Alto, CA: CPP Books.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1-25
- Gordon, V. N(1998). Career decidedness types :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 157-174.
- Jackson, W. M(1996). Facing th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career shifting and transition in today's economic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Southern Illinois.
- Philips, S. D(1992). Career counseling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Brown, S. D. & Lent, R. W.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513-547
- Schultheiss, D.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J(2001). Relational Influence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39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nsley, H. E. A(1992).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09-211
- Kelly, K. R., & Lee, W. C(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02-326
-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Abstract>

**The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Indecisi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Jin, Eun-ah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is research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on high school students. It has the objective of providing data to be used in career counselling through finding out the influenc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have on career indecision.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wer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above research objective.

Research issue 1. What kind of difference is there o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depending on sex and group?

Research issue 2. What difference exists on career indecis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Research issue 3. Is th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relationship each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Research issue 4. What level of influence do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ve on career indecis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948 1st year students of 4 high schools (1 academic boys' high school, 1 academic girls' high school, 1 vocational boys' high school and 1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Jeju city.

As a research tool, an interpreted version of Nolten (1994)'s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translated by Lee Mee-la(2000) was used without any alteratio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measured using a contracted form(CDMSES-SF)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veloped by Taylor and Betz(1983) adopted by Jo A-mi(2001). For career indecision level which was developed by Osipow et al (1976), a scale which acquired trust and reasonability by Yoo Jee-seon(2004) correcting the career indecision scale among Career Decision Scale (CDS)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of all collected data, differ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WIN 12.00 program and all presumptions were verified unde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under '.05'.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social support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and school type. However, if seen from the sub type of social support,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perceived that they received more support from friends and male students perceived that they received more support from teachers and more students of academic high school than that of vocational high school thought that they received more care and support from their parents.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x but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school type. Specifically, male students had higher confidence than female students on elements of self-evaluation and job information and academic school students had higher confidence on carrying out career related assignments than vocational school students.

Third, there is a difference on career indecision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x and school type. In other words, only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had difficulty in deciding their career.

Fourth, the higher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d parents' support and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s, the lower the career indecision level became.

Fifth,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b types of social support, parents'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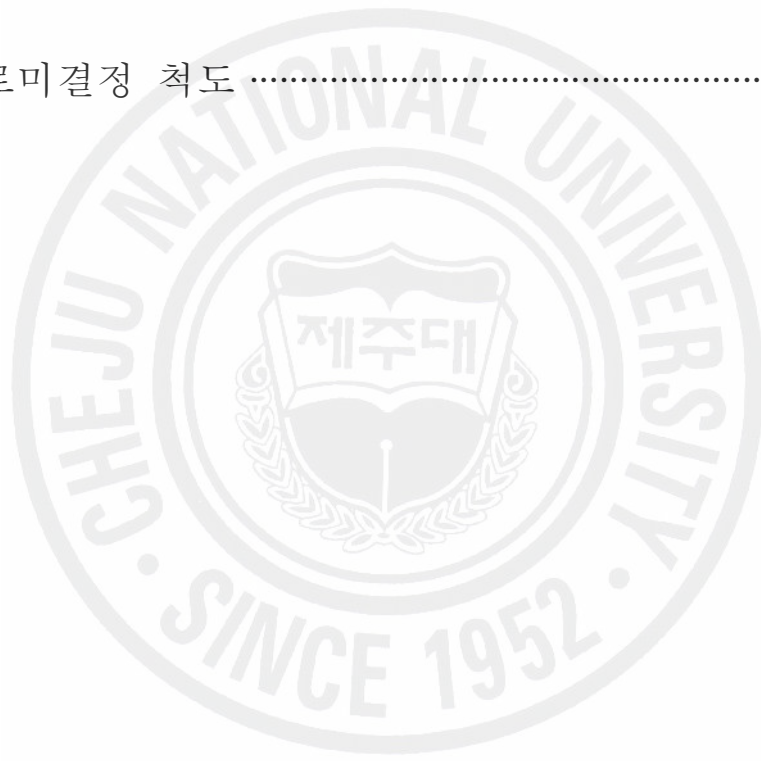
Sixth, parents' support, self-evaluation, job information, objective setting and self-efficacy of future plan affect career indecis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 following result can be propos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

Career counselling for high school students need to become a differentiated job counselling and educa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psychological variants and environmental variants with conditional variants such as sex and school type. Especially, f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deciding their careers, a program which increases confidence need to be provided so that students can explore a suitable world of job by exactly understanding their ability, value and desires etc and can establish a plan on entering into university and getting a job. In addition, counsellors will have to deal with the support level and resources of parents meaningfully during the process of deciding the careers of high school students.

부 록

1. 사회적 지지 척도 62
2. 진로결정효능감 척도 63
3. 진로미결정 척도 64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설문은 여러분의 의견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소 많은 문항이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문항에 하나 이상을 답하거나 빠뜨린 답이 있는 경우 설문지는 무효가 되므로 한 문항에 하나의 답만 작성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진 은 아 드 립

▶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① 남 () ② 여 ()

2. 계 열 : ① 실업계 () ② 인문계 ()

I.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1	2	3	4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 해 주고 용기를 주신다.	1	2	3	4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다.	1	2	3	4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1	2	3	4
5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	1	2	3	4
6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1	2	3	4
7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8	나의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	1	2	3	4
9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해 주신다.	1	2	3	4
10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11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신다.	1	2	3	4
12	나의 선생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1	2	3	4
13	나의 선생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1	2	3	4
14	나의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1	2	3	4
15	나의 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1	2	3	4
16	나의 선생님은 나의 목표와 관심 분야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1	2	3	4
17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신다.	1	2	3	4
18	나의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19	나의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한다.	1	2	3	4
20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1	2	3	4
2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곁에 있어준다.	1	2	3	4
2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준다.	1	2	3	4
23	나의 친구들은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1	2	3	4
2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 준다.	1	2	3	4
25	나의 친구들은 자신의 것을 나와 함께 사용한다.	1	2	3	4
26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27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 준다.	1	2	3	4

II.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자신 없다	거의 자신 없다	꽤 자신 있다	정말 자신 있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2	선택 가능한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과를 선택 할 수 있다.	1	2	3	4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4	선택한 대학교나 학과에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7	선택한 학과를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교과과정을 알 수 있다.	1	2	3	4
8	힘든 상황에서도 학과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10	향후 10년 동안의 직업에 대한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11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12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1	2	3	4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대학교나 학과를 바꿀 수 있다.	1	2	3	4
14	직업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15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연봉을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16	진로 결정 후,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1	2	3	4
17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18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19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1	2	3	4
20	관심 있는 대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21	적성이나 능력, 직종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23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24	입학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	1	2	3	4
25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학교나 학과 선택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2	3	4

Ⅲ.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만약 능력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____이 되고 싶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	2	3	4
2	두세 개 진로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1	2	3	4
3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겠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진로를 발견하지 못했다.	1	2	3	4
4	앞으로____이 되고 싶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진로선택이 어렵다. 앞으로 내 주위 사람들과 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1	2	3	4
5	지금까지 진로선택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드물고 진로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어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6	진로선택이라는 문제가 너무 불확실해 당분간 그 선택을 미루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다.	1	2	3	4
7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그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 봐야겠다.	1	2	3	4
8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이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	1	2	3	4
9	진로선택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	2	3	4
10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지만 그 진로가 나를 만족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1	2	3	4
11	난 나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진로선택을 할 수가 없다.	1	2	3	4
12	나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몇 가지 관심 가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	1	2	3	4
13	나는 관심분야도 많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던지 간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분야 중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다.	1	2	3	4
14	진로를 선택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_____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알 수가 없다.	1	2	3	4
15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1	2	3	4
16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	2	3	4